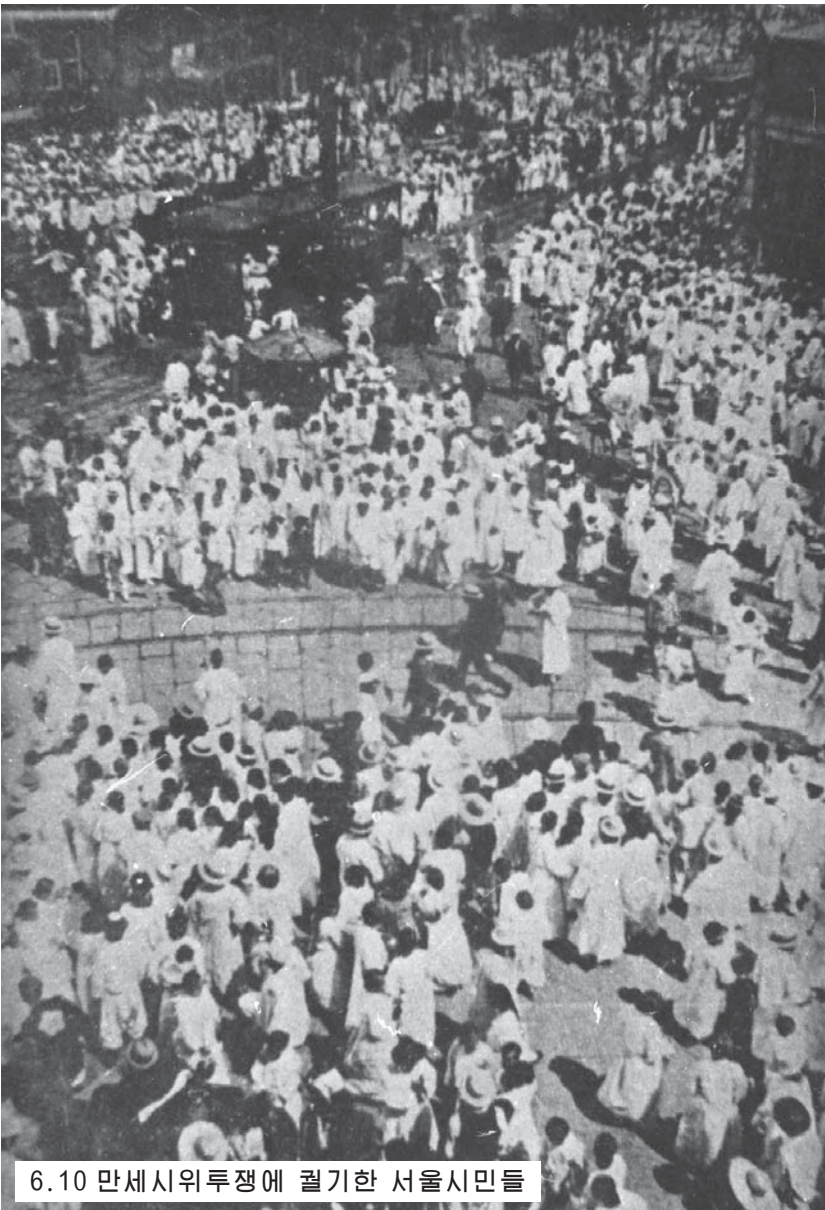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래양의 품에 안겨 (3)

오늘도 메아리치는 6.10 만세시위투쟁의 함성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97년이 되었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이 1920년대에 벌인 가장 큰 반일투쟁의 하나이다. 1919년 거족적인 3.1인민봉



6.10 만세시위투쟁에 참가한 서울시민들

기후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기운에 국토도 당황망조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총칼의 위협만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누를수 없

다는것을 알고 1919년 8월에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새로 조작해내고 경찰과 감옥을 대폭 늘였으며 국내의 도처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 민족의 분노와 반일독립기운은 더욱 고조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1926년 6월 10일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으로 폭발하였다. 시위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다.

이날 서울에서 시작되어 사시에 인천,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으로 확대된 반일시위투쟁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군중은 일제군경들의 탄압에 굴복없이 맞서싸웠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조선민족의 불같은 애국심과 자주독립의지의 힘있는 과시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78년이 되어온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조선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첩천지인 후,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부원을 약탈해가다 못해 나중에는 눈고름과 눈송가락마저 다 빼앗아가고 조선의 말과 글, 심지어 성과 이름

까지 없애려고 발악한 간악 무도한 날강도들이 바로 섬나라것들이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오늘날까지 그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으며 도리어 세인의 치를 떨게 하는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면서 군국주의 부활과 재집책동에 퍼논이 되어 광분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는가 하면 《조선의 발전에도움을 주었다》고 고아대 저지른 반인륜적죄악을 덮어 버리기 위해 역사기록책들에 미처남기지 않았다. 또한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음을 수시로 벌여놓으며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고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밑에 전쟁무기확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 우겨대면서 조선에 대한 재침의 칼을 비르고있다.

얼마전에는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의 간판밑에 피로 얼룩진 《육유기》를 팔력이며 일본해상 《자위대》 편성을 부산항에 들이밀었으며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인 핵요양 수방류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정녕 섬나라족속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결산하여야 할 천천속적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 진행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이 얼마전 오사까조선문화회관과 학교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박주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송근학부부의장 겸 교육국장, 부영욱 총련 오사까본부부위원장장을 비롯한 총련 외곽야마현본부와 나라현본부 위원장들, 총련일본군,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사업실행위원회의 성원들, 졸업생들, 교직원들, 학생들, 동포들,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추악되었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에서 보내는 축전이 소개되었다.

박주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축하말씀을 하였다. 그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개학의 종을 울린 학교의 70년력사는 위대한 길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애국애국의 숭고한 뜻을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애국1세대들과 그 뜻을 이은 2세, 3세대동포들의 애국헌신의 력사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의 교육

이러 동포대축전이 진행되었다. 동포대축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각별한 배려로 조국에서 보내는 조국인민들의 동포애에 넘친 축하인사들과 만경대학생소년군전에예술소조원들의 축하공연을 수북한 축하전반들이 상연되었다. 대축전장은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시며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행사를 더욱 빛내어주시러 대대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차고넘쳤다. 동포대축전에서는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각종 공연과 력대 교장 및 교육회 회장,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있는 졸업생들이 소개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피로 얼룩진 식민지파쇼통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는 교활할뿐 아니라 악독하고 야수적인 성격 띠고 실시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짓밟고 총칼로 괴뢰정권을 조작한 미국은 련이어 파쇼독압통치체제를 세우는 길로 나갔다. 미국과 그 주구들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완전히 비활화되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유린당하였다. 1949년 9~10월사이에만도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파쇼적강권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었다. 특히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괴뢰정권 조작 직후 《조선통신》이 강제해산되고 뒤이어 《국민신문》, 《세일신문》, 《조선중앙일보》, 《세계일

보》, 《국제신문》, 《화성매일신문》 등이 강제해산되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짓누르고 탄압할 목적으로 1948년 12월에 야망높은 《보안법》이 조작되었고 1949년 10월에는 《계엄법》이 조작되었다. 이러한 악법들에 의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짓밟히고 민족적자랑심을 가진 정치성령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보안법》에 의하여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1만 8621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었다고 한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야만적인 폭압소동은 러시아군인폭동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러시아군인폭동에 참가하였던 군인들과 인민들이 미국의 직접적지휘하

에 감행된 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당시 미군사교문단장이었던 로버트는 애국적인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주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인도주의적경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악한것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당신들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마음속에 안고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면서 대량학살, 집단학살, 주민의 강제추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특히 산간주변의 《부락은 전부 불질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극악한 식민지파쇼독압통치로 하여 남조선은 살륙과 공포의 암흑천지로 화하게 되었다. 로광혁

두 녀중학생살해사건과 미제야수들

남조선에서 나어난 두 녀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무참히 깔려죽은 사건이 있는 때로부터 21년이 되어온다. 알려진것처럼 2002년 6월 13일 남조선강점 미2사단 공병대소속 병장 위커 마크를 비롯한 미군살인마들은 경기도에서 동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던 심미선, 신효순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이는 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심미선, 신효순은 14살소녀들로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고 가슴속에 아름다운 꿈을 간직했던 꽃망울이었다. 이런 그들을 미군이 백주에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였다. 수습에 달하는 장갑차에 짓이겨져 창자가 튀어나오고 피가 땅자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였던지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하늘망도 눈을 감고 호곡한다.》고 전하였다. 이처럼 치명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미국은 《운전법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행하였다.》느니,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느니 하면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미국의 이 괴뢰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일떠섰다. 이리하여 남조선이 반미의 초콜바다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남조선

을 감정한 첫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온갖 야수적인 만행들을 거러낌없이 감행하여왔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목포형렬차침단간사건, 화순판광로동자집단학살사건, 로근리대학사건, 부평소년전승기케작사건, 동두천녀인행렬차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고령제철로사건, 동두천부서열차사건, 육골이살해사건, 서울충기관동사건 등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두 녀중학생살해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범죄행위는 그칠줄 모르고 계속 벌어졌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를 터치고있었는가. 미국의 남조선강점사야말로 인류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범죄의 력사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매국에 환장이 된 윤석열정권대당은 그 무슨 《떠를 나는 동맹》이니, 《가치동맹》이니 하며 피로 얼룩진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력사를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수행의 돌격대가 되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최근에는 미국

상전과 《핵협의그루뭉》설립과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확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범죄적인 《위성훈련》이라는것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고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통째로 팔아먹는 윤석열정권이 같은 쓸개 빠진 매국노들이 일한 남조선인민들이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친미친일사대굴종행위를 일삼고있는 특등매국노인 윤석열정권대당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박철남

